

현대 중국 철학의 百家爭鳴*

姜 春 華**

‘현대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1949년을 기점으로 하여 약 4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가 현대 중국 철학의 百家爭鳴을 살펴 보면서 우선 생각해 볼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현대 철학은 맑스주의 철학을 내용과 방법론의 중심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古代 철학과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다.

둘째, 현대 중국의 역사에서 철학 사상의 百家爭鳴은 정치 투쟁사의 변천과 그 궤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두가지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현대 중국 철학의 단계를 역사의 발전에 따라 세개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1949년부터 1966년까지의 시기이고, 두번째 단계는 1966년부터 1976년까지의 문화대혁명을 중심으로한 시기, 세번째는 1977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이다. 아래에서 지금 나누어 본 시기에 따라 현대 중국 철학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제 1기 : 맑스주의 철학 보급과 토론의 시기(1949~1966)

제 1기의 초기에는 주로 맑스주의 철학의 보급과 계몽을 위한 교육이 중국 전역에서 실시되었다. 1950년대부터 소련의 맑스-레닌주의 철학이 널리 전파되었고, 이와 함께 毛澤東의 『모순론』 『실천론』 등의 저작을

* 1991.9.5. 오후 3시 인문대 교수 회의실 집담회 발표 전문.

** 현 中國法政大學(北京) 교수

교재로 삼은 학습 熱潮가 일어났다. 1956년에는 ‘百家爭鳴, 百花齊放’이란 이른바「雙百方針」이 제정되어 현대 중국 철학의 발전에 큰 진전을 가져왔는데¹⁾, 많은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져 실로 대량의 논문과 저작이 이 시기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른바 “好景不長”, 共產黨의 左傾 오류로 인하여, 학술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는 사건이 몇 차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지식인이 수난을 겪기도 했다.

당시의 대표적인 爭鳴은 다음의 세 차례의 논쟁이다.

① 毛澤東, 馮友蘭과 梁漱溟의 爭鳴(1953.9~1955): 특히 梁이 문화이론상 復古主義者, 철학이론면에서 관념론과 직관주의자라고 비판을 받았다.

② 李達, 艾思奇와 胡適의 爭鳴(1955): 胡가 實用主義者라고 비판을 받았다.

③ 毛澤東과 彭德懷의 爭鳴(1959~1960): 彭이 右傾기회주의자라고 비판을 받았다.

한편, 이 시기 철학계 학술 토론의 주요한 주제는 크게 세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바,

그 첫번째는 ‘이론과 실제의 연관에 대한 문제’이다. 이론을 실제에 연관지우는 과정에서 “사유와 존재는 서로 동일성을 갖고 있는가”, “법칙은 창조할 수 있는 것인가”, “주관의 능동성과 객관적 법칙성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의 물음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당시의 「大躍進運動」과 같은 중국 사회주의의 방침과 노선에 대한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1) 당시 『人民日報』는 〈略論百家爭鳴〉이란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단지 착실하게 연구하여 이론이 성립되고 근거가 확실하면 된다. 그러면 전문가가 발언할 수 있고 비전문가도 발언할 수 있고, 유명인사가 발언할 수 있고 무명인사도 발언할 수 있다. 발언이 좋은 것은 원래 환영할 바이고 발언이 좋지 않아도 관계없다.”(只要是認真作過研究, 言之成理, 持之有故, 那麼成家的可以鳴, 不成家的也可以鳴, 大人物可以鳴, 小人物也可以鳴, 鳴得好固然歡迎, 鳴得不好也沒關係.)

예를 들어보면 1958년부터 중국은 스탈린의 전제사회주의 방식을 그대로 옮겨와 人民公社를 세우고 대약진운동을 강행하였다. 1958년 8월 黨의 八大二次 회의에서는 “힘차게 떨쳐 일어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하루 빨리, 앞당겨 사회주의를 건설하자”(鼓足乾勁, 力爭上游, 多快好省地建設社會主義)는 總路線을 제정하고, 공업생산은 “7년만에 영국을 초과하고 15년만에 미국을 능가하자”(七年超英, 十五年趕美)는 지나치게 성급한 구호를 제창했고, 1958년 北戴河회의에서는 일년내에 철강 생산을 일백 퍼센트 증가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사람이 크게 대담할 만치 땅도 많은 생산을 낸다”(人有多大胆, 地有多生產), 또는 “할 수 없다고 두려워 말고 생각치 못했음을 두려워하라, 오직 생각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할 수 있다”(不怕做不到, 就怕想不到, 只要想得到, 一定做得到)는 등 격관적 범칙에 어긋나는 허풍이 도처에 떠돌았다.

또한 인민공사를 강압하여 공사마다 4천여호 이상의 인원을 군사조직화, 전투행동화, 집단행동화를 실시하여 공동식당을 운영하고 유치원, 탁아소, 양로원 등 공공사업을 대량적으로 진행하고, 임금제도와 양식제도를 결합하는 배급제도를 실시하여 밥먹는 것은 돈을 내지 않고 소속원의 전부 혹은 대부분의 생활을 도맡는 공급제를 실시하려고 했다. 이와 같이 분배상에서 너무 성급하게 노동에 따른 분배(按勞分配)원칙을 부정하고 수요에 따른 분배(按需分配)를 실시하려 하였다. 그 결과 당시의 생산력 탈진의 상태와 경제적 부담의 가능성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유지해 가기는 매우 어려웠다. 또한 작업은 많이하나 적게하나 인민공사에서 똑같은 밥을 먹여주고 임금을 지급하니 노동자의 생산의욕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주관적 동기는 하루빨리 다같이 부유한 공산주의를 실현하려 하였으나 그 이상은 격관적 사태와 부합되지 않았고, 이에 생산력의 의욕은 엄청나게 저하되었으며 경제적 난관에 빠지게 되었다.

그에 더하여 자연재해와 소련의 차관상환 독촉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식량곤란에 봉착하여 하루에 두끼로 때워야 했고, 심지어 야채나 나무 껍질로 시장끼를 달래야 했다. 1959년 7월 廬山회의에서 彭德懷는 毛澤東에게 편지를 써서 이같은 실정을 밝히고 정책노선을 수정하자고 주장하였다가 도리어 右傾의 모자를 쓰고 해직을 당하고 박판을 받게 되었다. 그로부터 反우경의 세력은 더욱 격심하였고 3년의 대약진은 사실상 3년의 대파괴로 변하여 국민경제는 엄청난 손실을 당하였다. 당시 국민 수입은 3년간에 1천억원의 손실을 보고 부득이 5년기간(1961~1965)으로 조정되어 완화될 수 있었다.

두번째 주제는 ‘철학의 계급성에 대한 문제’로서, 이 문제는 “유물주의 철학의 黨性원칙과 계급투쟁이 철학의 진보성과 반동성을 판단,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시기 철학의 쟁명은 “유물주의와 관념론의 투쟁과 轉化”라는 주제 아래 각종 구체적인 학과목에 이르기까지 거의 다 계급성 문제가 연계되었다.

- ① 인식론에서 진리의 계급성
- ② 윤리학에서 도덕의 계급성
- ③ 종교에서의 계급본질
- ④ 미학에서의 아름다움과 미관념의 계급성 등

각 방면의 학술 영역에서 계급성이 존재한다고 광범위한 검토가 있었는데, 이는 ‘資産階級과 종교 그리고 전통문화에 대한 비판’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토론이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관념론에 대하여 아무도 감히 연구하지 못하였고 어떤 학자는 “開放唯心主義”를 언급하였다고 해서 비판을 받았다. 서양철학 특히 현대 서양철학은 감히 언급조차 하지 못하였고, 人性, 人道는 자산계급의 전유물로 간주되어 언급할 수 없었고, 도덕론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 종교는 소득만 해야할 정신적 아편으로 여겼고, 전통문화는 오로지 비판의 대상으로 되어 철학의 연구와 쟁명은 그려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진행되어야 한다.

세번째 주제는 변증법적 유물주의의 기본이론에 대한 토론이다.

① 변증법의 기본법칙과 핵심문제는 하나인가, 아니면 셋인가(對立統一規律, 質量互變規律, 否定之否定規律)

② 모순의 투쟁성과 동일성 및 절대성과 상대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③ ‘一分爲二’와 ‘合二而一’의 쟁명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

특히 ‘一分爲二’는 1950년대에 毛澤東이 古語를 인용하여 모순 현상을 설명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이견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64년 5월 29일 『光明日報』에 艾恒武, 林靑山이 <‘一分爲二’와 ‘合二而一’>이라는 논문을 발표함에 따라 쟁명이 시작되었다. 즉 그들은 지적하기를 “明代 학자 方以智가 『東西均』에서 주장한 ‘合二而一’은 변증법의 제일 기본적 법칙인 대립-통일의 법칙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一分爲二’의 방법으로 ‘合二而一’의 세계상을 연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견해를 발표함으로써 논쟁이 시작된다. 이는 원래 순수한 학술논문이었으나 毛澤東主義에 충성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정치적 판단기준으로 악용되어, ‘合二而一’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

당시 康生, 關鋒 등은 中央黨校 교장인 楊獻珍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도화선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合二而一’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모두 출당처분과 신체적 박해를 받고 下放을 당하여 노동개조를 해야했다. 楊獻珍은 그 후 文革中에 감옥에 갇히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의 종교현황은 대체로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1949~1956년의 시기이다. 新정부는 종교의 역할을 수많은 信者들을 동원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애국운동으로 유도하였다. 이는 제국주의 세력이 종교활동을 장악하는 속박에서 벗어나고, 종교계 내부의 봉건세력과 반동세력을 청산하고 낡은 착취압박제도를 폐지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그들은 낡은 종교사업을 신중국의 신자들이 1) 自力으로 꾸리는 종교 2) 독립 自主의 종교 3) 스스로 운영하는 自

辦教會라는 이른바 ‘三自’ 방침을 내세워 수많은 종교인을 동원하여 국민경제를 회복하는데 투입시켰다. 그때의 종교사업은 비교적 지도가 잘 되었고 정책이 온건하여 종교활동은 정상화의 길을 걸었고 종교계 인사와 정부와의 관계도 부드러운 것이었다.

둘째 단계는 1957~1965년의 시기이다. 50년대 후반부터 당내부에는 極左사상이 출현하기 시작하여 反右傾투쟁이 확대되어 의식형태의 계급투쟁이 강조되었다. 종교는 “반동의식형태”로 지적 비판되었고 신앙인은 낙후분자로 몰려 압박을 받았다. 정치운동이 점차로 가열화함에 따라 종교계는 정치적 입장에서 국의자일 수 없었다. 따라서 스스로 종교의 반동성과 기만성을 고백적으로 발표하고, 신앙인들을 강제적으로 還俗하게 하고, 종교시설과 敎理書 등을 폐기시켰다. 이 시기는 종교의 소멸을 목적했던 것이기에 당의 종교신앙의 자유정책은 극심한 파괴를 당하였고 신자들의 감정을 크게 상하게 만든데서 그들과 정부의 관계 또한 간격이 벌어진데서 敎內-敎外에서 일련의 모순이 생기게 되었다.

2. 제 2기 : 문화대혁명의 암흑시기(1966~1976)

1966년에 일어난 이른바 문화대혁명은 중국 천지를 극도의 혼란과 파괴상황으로 몰아 넣었다. 문화대혁명이라는 10년의 기간은 철학에 또 하나의 유심주의가 횡행하고 형이상학이 창궐하여 과학으로서의 철학을 완전히 왜곡시킨 시기였다.

이 운동은 毛澤東이 직접 착수 지휘한 것이다. 그의 중요 논점은 이러했다. 즉 상당수의 자산계급의 대표적인 인물과 반혁명 수정주의 분자들이 이미 당내, 정부, 군대와 문화계에 뒤섞여 침투해 들어왔으며, 중앙에까지도 자산계급 본부가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아래에서 부터 위로의(自下而上) 광범위한 군중들을 동원하여 자본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집권화로부터 탈권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문화

대혁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사실상 한 계급이 다른 한 계급을 뒤엎는 정치대혁명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毛澤東은 1956년에 “자산계급 철학자들은 공산당의 철학을 투쟁의 철학이라 하는데 이말은 하나도 틀림이 없다. 그러나 투쟁의 형식은 시대가 다름에 따라 같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林彪와 四人幫은 이 毛澤東의 언급을 斷章取義하여 「鬭爭哲學」을 제창, 권력 탈취를 위한 사상적 도구로 이용했다. 그들은 彭眞, 羅瑞卿, 陸定一, 楊尚昆 등 老一代 혁명가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투쟁의 철학’을 부르짖으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투쟁은 곧 생활이다. 네가 그를 타도하지 않으면 그가 너를 타도할 것이다. 네가 그를 때리지 않으면 그가 너를 때릴 것이고, 네가 그를 죽이지 않으면 그가 너를 죽일 것이다.”(鬭爭就是生活, 你不鬭他, 他鬭你嘛, 你不打他, 他要打你, 你不殺他, 他要殺你.)

“매 시각마다 계급투쟁을 잊지 말고, 매 시각마다 무산계급통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要念念不忘階級鬭爭, 念念不忘無產階級專政.)

“공산당의 철학은 바로 투쟁의 철학이다. 투쟁하지 않으면 퇴보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쓰러진다.”(共產黨的哲學就是鬭爭哲學, 不鬭則退, 不鬭則垮.)

“공산당의 철학은 투쟁의 철학”이라는 反動思潮의 선동과 함께, 특히 林彪와 江青의 이른바 “일체를 의심하고 일체를 타도하라”(懷疑一切, 打倒一切)는 선동 아래 紅衛兵이 전국을 휩쓸었다.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되고 투옥되었다. 중앙에서는 劉少奇, 鄧小平, 陶鑄 등 일단의 지도층이 타도되고 省, 縣, 市長 심지어 국민학교 교장까지도 수정주의자, 변절자(叛徒), 간첩, 죽어도 고치려하지 않는 자본주의 집권파(死不悔改的走資派)로 몰리었다. 특히 당시에 중국에 거주하던 우리 朝鮮族들도 이 재난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없이 희생되었고 목숨까지 잃었다.

四人幫은 모순의 통일성을 말살하고 모순의 대립성을 왜곡하여 소위 ‘對着幹(즉 모든 면에서 자본주의-수정주의와 반대-대립의 길로 나아간다는 의미)’을 주장했다.²⁾ 일체의 봉건주의,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소멸시킨다는 목표 하에 모든 전통과 문화, 과학, 기술 및 교육을 파괴하였고, 수많은 인적 손실과 문화 유산의 流失을 초래했다.

이 시기는 요컨대 비판이 토론을, 정치가 학술을 대체하고 제압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지식인일수록 반동적이라는 판단 아래 1968년부터 대대적인 「下放運動」을 전개하여, 대학교수, 黨의 간부를 비롯한 지도자급 지식인과 청소년들을 집단적으로 농촌의 노동현장에 10여년씩 투입, 이후 중국의 학술 영역과 전반적인 사회 생산력에 큰 공백을 만들었다.

또한 인위적으로 “철학전선에서의 세차레의 학술논쟁”을 조성하여 정치적 박해를 가했는데, 이같은 학술계의 대토벌은 이른바 ‘抓辮子, 打棍子, 扣帽子’로 이어졌다.

抓辮子是 이른바 “종합경제기초론”은 원래 해방 초기에 黨 내부적으로 발표되었던 과도기의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개괄적인 논설이었는데, 문화대혁명 당시 다시 제기하여 관련자들이 “사회주의의 길을 반대하고 계급모순을 調和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꼬리를 잡는다’는 것이다.

打棍子란 ‘사유와 존재는 동일성이 있는가’라는 논쟁에서 동일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자본주의와 수정주의의 이론을 지지하고 이른바 “三面紅旗”(總路線, 大躍進, 人民公社)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몽둥이에 얻어 맞는다’는 것이다.

2) 당시 전국적으로 널리 선전했던 형이상학적 절대주의 公式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비록 가난한 사회주의일 망정 부유한 자본주의를 따라지 않는다. 비록 사회주의의 발전 속도가 느리다해도 자본주의의 빠른 발전을 따라지 않는다. 비록 사회주의의 잠초라해도 자본주의의 싹을 따라지 않는다.”(寧要窮的社會主義, 也不要富的資本主義. 寧要社會主義的低速度, 不要資本主義的高速度. 寧要社會主義的草, 不要資本主義的苗.)

扣帽子는 ‘一分爲二와 合二而一의 논쟁’에서 合二而一을 주장한 학자들은 모두 모택동사상을 반대한다는 모자를 쓰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학술논쟁은 정치박해로 전환되고, 학술상의 百家爭鳴, 百花齊放의 이른바 雙百方針은 철저히 짓밟히고 말았다. 철학 역시 투쟁의 철학을 표방한 맑스주의 철학을 제외한 그외의 모든 철학은 극단적인 우경화로 물리고, 한편 과학분야는 遺失된 상태로 빠지게 되었다.

문화대혁명 後期는, 1971년 9월 13일 林彪 死後, 周恩來가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들출정치’와 무정부주의를 반대하고 幹部정책, 지식인정책, 경제정책을 대내외에 포방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이에 四人幫은, 당시 국내외적으로 명망인사였던 周恩來를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 이른바 「影射史學」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탈권을 목적하였다. 「影射史學」이란 역사를 빌어 간접적으로 周恩來를 비판함을 말하는 것이다. 「影射史學」에 의한 四人幫의 周恩來 비판 작업은 ‘儒法鬪爭 論戰’으로 비화되는데, 그 시작은 1972년 楊榮國이 『紅旗』잡지 제12기에 발표한 문장³⁾에서 “신홍세력의 발전을 촉구하려는가 아니면 완고하게 낡은 세력을 고수하려는가”라는 문제를 던지면서, 周恩來를 儒家의 대표적인 인물로 비방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여론을 동원시켜 민심을 교란시키려 시도했던 것이다. 뒤이어 ‘批林批孔’ ‘儒法鬪爭’ ‘評水滸’⁴⁾는 문화대혁명 중의 세차례 大論戰으로 기록된다. 이 역시 전국적으로 민중을 동원하여 ‘학습’을 강요하고 下鄉 청소년에게조차 黨校에 입교시켜 학습하게 하였다.

한편 탈권을 목적으로한 江靑의 기세는 심지어 공산주의 女皇帝가 되려고까지 꿈꾸었다. 그는 “여자도 황제가 될 수 있다. 공산주의가 실현

3) 〈春秋戰國時期思想領域內兩條路線的鬪爭—從儒法論爭看春秋戰國時期的社會變革〉

4) ‘評水滸 論戰’에서는 周恩來를 作中の 宋江과 같은 투항적 인물이라고 비방했다.

되어도 여황제가 있다.⁵⁾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나를 武則天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呂后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나도 더없는 영광을 느낀다”⁶⁾고 하면서, 성급히 周恩來를 타도하고 자기가 女皇帝가 되려 하였다. 그러나 그 야심은 毛澤東의 엄격한 비평으로써 실현되지 못하였다.

문화대혁명 기간중 모든 봉건주의,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소멸시킨다는 명분으로 모든 전통문화와 과학기술 및 교육은 파괴되었고 수많은 문화유산은 불살라졌다. 동시에 지식인들은 농촌으로 보내져 改造되어야 한다면서 下放운동이 일어났고, 중·고등학교의 졸업생들조차 농촌에서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면서 下鄉운동을 벌임으로써 농사나 짓게 만든데서 지식인들은 연구를 못하고 청소년들은 공부의 기회를 잃었다. 문화, 교육과 과학기술의 훼손과 낙후는 한 世代에 걸쳐 피해를 입게 되었다.

3. 제 3기 : 개혁해방과 사상해방의 시기(1976~현재)

1976년 周恩來와 毛澤東이 사망하고 사인방이 도태된 뒤 중국은 역사의 새시대에 접어들었다. 1978년 12월 11屆 3中全會에서 문화대혁명과 그 이전의 左傾 착오를 비판하며, 새로운 사상노선, 정치노선, 조직노선이 확립되었다. 이는 중국의 건국 이래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역사적 전기였다. 그러나 이 역사적 전기는 복잡한 모순 중에서 시작되었다. 우선 鄧小平이 華國峰의 이른바 ‘兩個凡是’⁷⁾를 비판한 이래, ‘실천이

5) 1976. 8. 在天津的一次講話：“女人也能當皇帝，到了共產主義也有女皇。”

6) 1976. 3. 在十二省自治區負責人會議上的講話：“有人說我是武則天，又有人說我是呂后，我也不勝榮幸之至。”

7) 이는 1977. 2. 7. 『人民日報』, 『解放軍報』 및 『紅旗』 같은 신문 잡지에서 社說로 발표된 것으로 무릇(凡是) 毛主席의 정책과 지시는 변함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비록 毛澤東은 사망했지만 모든 문제를 그의 지시 정책대로 변함없이 처리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그 주장의 요지이다. (“凡

진리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주장에 대한 장기간의 대토론이 진행된 결과로 교조주의와 개인숭배의 정신적 속박에서 탈피하게 되었다. 그 기초 위에서 이른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 제시되고 전국의 촛점은 현대화 건설과 전면적인 개혁개방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정치의 새물결과 더불어 철학 분야에서는 실사구시의 사상노선 아래 “百家爭鳴, 百花齊放”이 부활되어 다섯 주제의 주요 정명이 있었다. 그 내용은

- ① 진리의 기준문제 (1978~1980)
- ② 人道主義와 異化 문제 (1980~1984)
- ③ 중국전통문화와 현대화 문제 (1985~1988)
- ④ 생산력 기준문제 (1987~1988)
- ⑤ 철학체계 문제 (1987~1989)이다.⁸⁾

이 가운데 ‘진리의 기준문제’를 둘러싸고 가장 큰 규모의 전국적인 토론이 벌어졌다. 鄧小平은 「‘兩個凡是’는 맑스주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1977. 5. 24)〈“兩個凡是不符合馬克思主義”〉」는 담화를 발표하여 華國峰의 ‘兩個凡是’를 정식으로 비판 반대하였다. 그때 그는 “兩個凡是는 안 된다. 이 발언대로 한다면 내가 복권(平反)된 문제를 해석할 수 없고 1976년 수많은 군중들이 天安門광장에서의 활동을 合情合理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한사람이 말한 때 한따디 발언이 모두 옳고 한사람이 절대적으로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하였다. 華國峰의 兩個凡是대로 한다면 鄧小平은 물론 기타 老幹部(혁명 一世代 간부)들이 해방 복권될 수 없는 것이었고, “4월 5일 천안문 사건”도 복권될 수 없으며 수많은 잘못된 사건들도 복권받을 수 없고 정치적 해결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是毛主席作出的決策，我們都堅決擁護，凡是毛主席的指示，我們都始終不渝地遵循。”)

8) 이 글에서는 다섯가지의 논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며 파장이 컸던 ‘진리의 기준문제’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말하려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毛澤東에 대한 개인 숭배와 미신에서 해방되어야 했고, 교조주의에서 해방되어야 했다. 이 정치적 해방의 사상논쟁이 바로 진리의 기준문제를 둘러싼 토론으로 연결된다. 당시 中央黨校 교장이었던 胡耀邦은 직접 南京大學 哲學系 교수인 胡福明의 「실천은 진리 검증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논문을 심사 수정하여 『理論動態』에 공개적으로 발표했다(1978. 5. 10), 이어 이 글이 『光明日報』(11日), 12日에는 『人民日報』 『解放日報』에도 전재됨에 따라 ‘진리의 기준문제’에 대한 대논쟁이 시작되었다.

이 논쟁에서 진리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가지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 내용은

① 영수의 최고지시가 진리이다. 毛 주석의 말씀은 말끝마다 진리이고 한 마디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천 마디 말을 초과한다.

②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이 진리이다.

③ 권력이 진리이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졌으면 바로 그에게 진리가 있다.

④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라는 것이었는데, 반복되는 진지한 토론이 전국적으로 진행된 후에 ④ 진리의 기준은 실천이라고 통일되었으며 毛澤東에 대해서도 70퍼센트는 장점이지만 30퍼센트는 결함이라고 평가되었다.

‘진리의 기준문제에 대한 대토론’은 결국 중국의 사상해방을 촉진하고 실사구시의 정책노선을 확립토록하여, 이로부터 ① 과학정신의 제창과 ② 철학의 범위확대 및 현실세계와의 접촉확대라는 두가지 의미있는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① ‘과학정신의 제창’이라는 성과는 과학태도와 과학방법의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될 수 있다. 우선 과학태도의 측면에서는 이전까지 자본주의 철학이라 하여 비판 배척해 오던 서양철학사조에 대한 태도가 크게 변화하여 全盤吸收도 하지 않고 이른바 “取其精華，爲或所用”이라는

선별적 태도를 표명하게 되었다.⁹⁾

그리고 과학방법에 있어서는 종래에는 일체를 계급분석, 개별과 일반, 추상과 구체 등 전통적 방법으로만 분석했던 것을 이 시기에 와서는 특히 맑스주의 방법론의 변증법이 발전되어 자연과학의 성과와 연결시킴으로써 한 때 변증법과 三論(控制論, 信息論, 系統論)관계의 토론이 활발히 전개되기도 했다.

② 철학의 범위의 확대와 현실세계 접촉의 확대는 중국의 현대 철학으로 하여금 현대 사회의 실천적인 요구와 급속도로 발전하는 자연과학의 충격, 그리고 서방의 각종 철학사조와의 대응을 통해 자기발전의 문제에 대해 사고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鄧小平의 이른바 ‘黑貓白貓論’과 같은 명석한 현실진단을 통하여, 현재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 이론에 대한 개조작업도 진행하여 이른바 ‘사회주의 초급단계 이론’과 같은 성과를 낳게 하였다.

‘사회주의 초급단계 이론’에 대하여 잠시 소개하면 대강 다음과 같다. 이는 맑스이론이 시대감각이 부족하여 발전하는 시대와 맞지 않는에서 개조가 요구되면서 제시된 것이다. 예컨대 맑스 레닌은 사회주의 제도와 생산관계는 자본주의 제도와 생산관계보다 우월하여 생산력의 발전이 빠르다고 하였다. 그러나 각종 원인에 의하여 실제로는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보다 생산력이 낙후되었다. 생산력이 가장 발달된 미국, 일본 등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각기 채택한 분단된 국가(중국과 대만, 남한과 북한, 서독과 동독)는 모두 자본주의를 시행한 지역이 더 빨리 발전되었다. 이 현실은 승인하지는 않았으나 회피할 수 없는 사실인에서 명석한 분석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게 되었다. 맑스가 추측했던 사회주의는 원시사회-노예사회-봉건사회-

9) 80년대에 세차레의 ‘西方哲學熱’이 발생했는데, 처음에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다음에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그리고 쇼펜하우어, 니체의 의지주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특히 1988~1989년).

자본주의사회를 거친 후 성립되는 사회주의였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 단계를 넘어서는 사회주의는 그 생산력의 발전이 당연히 자본주의보다 발전된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주의는 고도로 발달된 사회주의의 기초위에 건설된 것이 아니라 반봉건, 반식민지사회의 기초 위에서 인민혁명 이후에 수립된 것이었다. 중국은 56개 민족이 함께 공존하는 다민족국가이다. 따라서 사회발전은 소수민족보다 극히 불균등하여, 원시사회로부터 사회주의 사회로 뛰어넘어온 大興 安嶺 鄂倫春族이 있는가하면, 노예제 사회로부터 사회주의 사회로 넘어온 西藏의 藏族이 있고, 기타민족도 대부분 탄봉건, 반식민지사회로부터 사회주의 사회로 들어섰다. 그러므로 舊 中國이 사회주의를 위하여 제공한 경제기초는 매우 낙후하고 상품경제는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고 생산의 사회화, 상품화, 현대화의 始點은 매우 낮은 것이었다. 때문에 중국은 자본주의의 충분한 발전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 사회로 들어섰으나 생산력의 거대한 발전과 상품경제의 충분한 발전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었고, 사회주의 단계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이 실현한 공업화와 생산의 사회화, 상품화, 현대화를 보충 실현해야 했다. 따라서 사회주의 실현이란 상당히 긴 역사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인에서 중국의 발전과정은 초급 형식의 사회주의 단계이지, 발달한 사회주의, 완전한 사회주의 단계는 아직 요원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생산력에 대한 이같은 분석을 통하여 당장 내일이면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면 환상에서 벗어나와서 이제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알맞는 정책노선이 제기되었다. 국내로는 정치개혁과 경제계획이 착수되고 대외적으로는 개방정책을 실시하여 대외무역을 확대하고 수출입을 증가했으며 외국의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외국의 투자도 환영하여 외국의 獨資기업, 合資기업, 合作기업 등 이른바 ‘三資기업’을 우대하여 기술과학의 진보와 국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당시 黨中央 서기였던 胡耀邦은 문을 활짝 열어 놓으니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 좋으나, 파리, 모기까지 들어와 해롭기도 하니 방충망을 설치해야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의 국가발전에 유리한 외국의 선진기술과 경제투자 등은 대폭 도입하고 불리한 것은 방충망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여하튼 아직도 사회주의 노선에 입각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나마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은 자국을 새로운 발전단계로 이끌어 오고 있음에 틀림없다.

개혁개방에 의한 새로운 사상해방이라는 현대 중국철학의 제 3기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이 시기를 통해 중국의 현대 철학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중국의 개방정책을 보는 胡繩邦의 방충망 설치의 언급과도 같이 “取其精華，爲我所用”이라는 제한적 선별의 원칙이 계속 올바르게 적용되어 간다면 앞으로 중국의 현대철학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이다.